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메모는 휴대폰에, 아이디어는 특허넷에...



김 병 오
한신중학교 교무부장
(ajukbo@hanmail.net)

21세기는 '가치 있는 정보 (Valuable Information)'가 곧 '힘(Power)'과 '돈(Money)'으로 직결되는 정보산업 사회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고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은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아직도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메모는 아직도 중요하다. 최근 KTF에 따르면 문자 발신량(20억8천6백15만 건)이 음성전화 발신량(20억4천6백69만 건)

시지를 주로 이용하는 신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 업지족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된 여론층, 즉 감성과 기술의 융합의 시대로 불리는 신(新)21세기를 대표할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지족은 휴대전화를 멀티미디어의 도구로 만들고, 동영상이나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의 개성표현은 물론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업지족들은 손바닥 위에서 열리는 작은 세상인 휴대폰의 액정 화면에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휴대폰은 디지털카메라의 기능은 물론이고, TV도 볼 수 있으며, MP3를 통해 휴대용 오디오나 게임기가 되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방 기능을 포함하거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플레이 제작까지도 가능하다.

이렇듯 휴대폰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발명하는 사람들도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발명과 연관시키고 발명에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종이를 액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즉 메모는 종이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휴대폰에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낯선 발명이라는 주제를 친근하게 접근시킬 수 있으며 발명교육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는 특허넷으로 등록하라!

국제특허출원도 이제 안방에서 클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특허 사무소를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위에 나온 구호처럼 안방에 앉아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2005년 초, 모든 특허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이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 심사, 보정, 등록 등 모든 작업을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키보드를 누름으로써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특허정보 검색은 물론 세계 최초로 국제특허출원(PCT)까지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특허청 심사관들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우리 특허청은 국제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고, 6월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도 이 소프트웨어인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의 보급을 마친 상태이고, 인도와 키르기스스탄, 또 선진국인 스페인과 프랑스 특허청에서도 'PCT-ROAD'의 사용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허넷 시스템은 국제적인 인기 수출품목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특허 전자 출원율도 세계 1위인 40%로 유럽 특허청의 13%와 일본 특허청의 10%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발명하는 여러분도 특허넷을 활용하여 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시간과 돈을 절약해야 할 시기이다. 또 특허넷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발명을 교육하는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은 비단 특허를 등록, 출원하는데 한정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발명품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온라인을 이용하려고 권하고 싶다.

사이버장터인 옥션에서 꽃바구니, 화환 등을 팔기 시작한 J모씨는 올해로 꽃 장사를 한 지 7년째 되는 조그만 꽃가게의 주인이다. 그러나 2002년 온라인 상에서 꽃 상인으로 변신을 시도, 2년 만에 역대에 가까운 매출을 올려 디지털 성공 상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녀가 인터넷에 올린 꽃바구니는 자신의 발명에 가까운 노력으로 만든 이미지를 올린 것으로, 시험 삼아 팔아본 것이 일명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현대판 장돌뱅이를 자처하고 있는 ㈜코비코의 H사장은 전국을 돌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발명하여 제품화한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이버 장돌뱅이이다. '차유리 코팅제, 코집게, 정전기방지 열쇠고리' 등을 히트시킨 데 이어 최근엔 이어폰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사운드 공유기'가 히트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이제 메모할 때나 출원할 때, 그리고 발명품을 판매할 때도 온라인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에 엄지로 기록하고, 주변의 컴퓨터에다가 목에 걸고 있는 이동식 저장디스크(USB)에 담아둔 특허넷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해보자!

당신이 지금 컴맹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래도 도전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인터넷은 2등의 생각을 가진 당신에게 1등의 권리를 안겨줄 것이다.

을 앞질렀다는 깜짝 놀랄만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휴대전화 이용층 중에 청소년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가는 현실에서 어쩌면 예정된 일인지도 모른다.

위의 사실은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메모의 틀이 바뀌어야 할 시기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메모를 하는 하드웨어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종이뿐만이 아니다. 컴퓨터에서 노트북, PDA, 휴대폰까지 그동안 메모와 큰 연관을 두지 않았던 기기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발명하는 여러분도 자신의 목이나 주머니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전자종이인 휴대폰에 엄지라는 만능펜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그 아이디어를 '특허넷(출원에서 등록까지 온라인 서비스)'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싶다.

메모는 휴대폰에 엄지로 하라!

지난 8월 28일 모 언론기관이 주최한 '업지족 정보사냥대회'가 열렸다. 2만 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전국의 모든 곳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는 사이버 상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대회를 보면서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은 '아! 이제 메모는 휴대폰에 엄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즉 '이제는 업지족이 뜬다'라는 것이다.

그럼 업지족이란 뭘까? 휴대폰의 여러 기능 중에서 문자 메

책 속의 이야기

엉뚱한발상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쥐 사람들

인간도 물고기처럼! 놀크로스의 잠수 도구



라이트 형제, 콜럼버스, 아문센, 암스트롱...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과 시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쉽게 이를 수 없는 곳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도전으로 역사를 새롭게 바꿔 나가고 있다. 하늘을 새처럼 나는 것, 바다 속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이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바람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것에 도전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다. 비행기라든가 잠수함, 또는 여러 가지 잠수 도구가 바로 그것들이다.

레오나드 놀크로스는 바다에 도전한 사람이다. 놀크로스는 고무로 잠수 경비를 만들어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834년 5월, 웨브 강의 브리저디어 록에서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시간은 정오를 넘어 눈부셨으며 때때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군중 한가운데에는 이상한 물체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움직였으나 생김새는 아주 괴상망측했다.

'마치 기사의 갑옷 같군.' 그 물체 가까이 있던 사나이가 중얼거렸다. 그것은 머리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둥근 낚모자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긴 호스가 정수리에서 나와서 펌프와 연

결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탕줄 같아 보였다. 게다가 몸은 시커먼 고무로 싸여 있었다.

'갑옷이라니요? 잠수복이래요. 저 호스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거래요.'

'아하! 저 모자를 쓰면 물 속에서도 오래 있을 수 있구나.' 옆에서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것도 몰랐어요? 저건 고무로 된 옷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편해질 거라고 하던데요.'

사내가 손뼉을 치며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강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고요가 흘렀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따가운 햇살 아래서 펌프만이 요란히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펌프질을 하는 두 사람은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죽음보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마침내 강 속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왔다! 야! 성공이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의 삼폐인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레오나드 놀크로스보다 기쁠 수는 없었다. 그는 금방